

아이유 “첫 영화 도전, 신선하고 흥미로워”

넷플릭스 ‘페르소나’ 주인공 “드라마보다 자유로워 좋아”

“첫 영화 데뷔작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로 남게 된다는 것은 행운이죠.”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26)가 넷플릭스의 ‘페르소나’로 첫 영화에 도전했다.

이 영화는 임필성, 이경미, 김종관, 전고운 네 명의 감독이 아이유를 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단편 영화 묶음이다. 페르소나는 감독 자신의 분신이자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를 뜻하며, 이 영화에서는 네 감독이 읽어낸 배우 아이유의 다채로운 모습을 말한다.

27일 서울 여의도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아이유는 “네 명의 감독이 저를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시도였다”며 “저에게도 역시 단기간에 네 가지 캐릭터를 해내야 하는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라마를 통해 연기한 그는 첫 영화 도전에 대해 “드라마보다 자유롭고 제한이 적었다”며 “처음에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될 줄 모르고 ‘좋다.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페르소나’는 이경미 감독의 ‘러브 세트’, 임필성 감독의 ‘씩지 않게 아주 오래’, 전고운 감독의 ‘키스가 죄’, 김종관 감독의 ‘밤을 걷다’로 구성됐다.

아이유는 각 영화에서 각기 다른 얼굴을 선보인 다. ‘러브 세트’에서는 아빠의 애인이 되어버린 영아 선생님과 물리칠 수 없는 테니스 경기를 벌이는 소녀로 분해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이유는 “저에게 없는 면 중 하나가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인데, 테니스를 배워서 치다 보니 힘들고 햇볕이 뜨거웠다. 며칠 동안 짜다 보니 화가 났다”고 웃었다.

“씩지 않게 아주 오래”는 비밀을 숨긴 여성과 평범한 남성의 하루를 통해 남녀 관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작품. 여기서 여자 주인공 은을 연기하는 아이유는 “제가 만나보지 못한 독특한 캐릭터였다. 그래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제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돌아봤다. 아이유는 ‘키스가 죄’에서는 키스 마크를 달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집에 갇혀버린 친구를 구출하는 여고생을 연기한다. 아이유는 “전고운 감독님이 대본을 읽기보다는 ‘상대의 상태를 읽어내라’고 독특한 훈련을 시켰다”고 말했다.

‘밤을 걷다’는 밤거리를 걷는 연인의 모습을 그린다. 연출을 맡은 김종관 감독은 “아이유에게서 쓸쓸함이 보였다. 그 부분을 제거 하고 싶은 이야기에 녹여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유도 “김종관 감독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났다”며 “쾌적한 여름밤에 꿈을 꾸듯이 거리를 걸으면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페르소나’ 프로젝트는 윤종신이 기획했다. 영화제작자로 처음 나선 그는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초기부터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종신은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도 짧은 시간에 콘텐츠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영원한 세일즈 기간’을 가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처음부터 생각했다. OTT에서 콘텐츠가 퍼지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며 “콘텐츠를 본 사람이 1~2년 뒤에도 존재하고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고 싶었다. 기획사 이름을 ‘미스틱스토리’라고 바꾼 이유도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 감독과 단편 영화 묶음을 선보이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감독들을 만나보니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유가 ‘페르소나’ 주인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새로운 곡을 받아들일 때의 풋풋한 눈빛이 생각났다”며 “아이유는 이미 하나의 견고한 아이론인데도, 과감하게 이 작품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속편 제작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아이유가 첫 번째 시리즈고 앞으로 계속 될 것 같다”며 “출발은 창작자 우선이다. 충분히 전권을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페르소나’에는 아이유 외에 배우나, 김태훈, 박해수 등도 출연한다. 다음 달 5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유재석-조세호 ‘유 퀴즈 온 더 블럭’ 시즌2 내달 귀환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새 시즌이 다음 달부터 방송된다.

tvN은 27일 유재석과 조세호의 길거리 퀴즈쇼 ‘유 퀴즈 온 더 블럭’ 시즌2가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편성을 바꿔 다음 달 16일 밤 11시 방송한다고 밝혔다.

퀴즈를 모두 맞힌 시민들에게 현금자동출금기(ATM)에서 바로 상금을 인출해주는 이벤트는 유지하되, 긴장감과 더 큰 재미를 위해 촬영 장소마다 새로운 볼과 장치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각국 크리에이터 헤쳐 모여 채널A ‘지구인 라이브’

1인 크리에이터들이 주축이 되는 또 하나의 예능이 온다. 대신 이번에는 무대가 ‘글로벌’이다.

채널A는 오는 29일 밤 9시 30분 새 예능 ‘지구인 라이브’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크리에이터들과 화상으로 연결하거나 직접 만나 그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포맷이다.

최근 1인 크리에이터들을 내세운 예능이 많지만, 시청률 등 흥행 면에서는 딱히 좋은 성적을 낸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가운데 ‘지구인 라이브’는 크리에이터들보다 지구촌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포맷과 다양한 콘텐츠에 방점을 찍었다.

MC 중 한 명인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철학과 인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하도 “다른 프로그램과 겹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원중계로 한다”라며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다. 지구인이 뭉쳐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벵커(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2019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닥터 프리즈너(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컬계
[1]	00 사랑의 가족 50 브레드 이발소(재)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푸르기 식자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드래곤에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뽀얏아 사랑해 55 술을 때 사랑한다(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전국시대	00 워워뽕뽕 로그인 코리아(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타오르자마 버스터 2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가로채널(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05 원소집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닥터 프리즈너(재)	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김란사>			
[10]	00 KBS 스페셜 55 UHD 습터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벵커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킬빌 1~2부	10 가로채널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스포츠 다이어리 45 문화사색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 미리보기 <웃동네 직업 세계>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00 우리는 비트몬스터
06:20 세계테마기행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3:10 장수의 비밀	19:5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07:30 출동! 슈퍼윙스	13:40 다큐 시선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엠버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미안마 소음기행 4부 뭉쳐야 산다(아용반)>
08:30 미니특공대 X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08:45 칼랄라 뽀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여행책에 없는 제주 4부 비람코지에 봄님 오셨네>
09:00 두다다쿵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1:50 다큐 시선
09:30 몰랑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출동! 슈퍼윙스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랄라 뽀우(재)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양송이수프와 밀라노식 카르보나라>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17:15 두다다쿵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8일(음 2월 22일 甲子)

<p>子 36년생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된다. 48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60년생 상승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72년생 여태까지 쌓아 온 바를 평가받게 되리라. 84년생 우려할 만한 일이 보이니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27</p>	<p>午 42년생 전혀 다른 영역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54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라. 66년생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78년생 일관하는 것이 맞다. 90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중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49, 87</p>
<p>丑 37년생 완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 49년생 체면을 의식 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 61년생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상황을 감안하자. 73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85년생 대체로 양호한 형태를 띠겠지만 참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9, 23</p>	<p>未 43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55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행운이 따른다. 67년생 대동소이하다 하면 아니 되는 법이니 어림잡아도 지장이 없다. 79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알다. 91년생 불가피하다면 차선책을 택하라. 행운의 숫자 : 51, 22</p>
<p>寅 38년생 쉽게 잃어버릴 수 있으니 철저한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 50년생 요령껏 이행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62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74년생 세심하게 정리 정돈해야 한다. 86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행운의 숫자 : 20, 48</p>	<p>申 44년생 진척으로 인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56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68년생 무리 하면 아니 되는 법이니 적당했을 때 미련 없이 정리 시켜라. 80년생 그러대로 양호할 것이다. 92년생 재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다. 행운의 숫자 : 86, 03</p>
<p>卯 39년생 제반사가 지연되고 결과가 늦추어질 수 있다. 51년생 조처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 63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질 것이니라. 75년생 지극히 당연하니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87년생 힘들더라도 참아야만 발전된 판세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18</p>	<p>酉 45년생 차분한 마음 자세와 포용력이 절실히 요청 된다. 57년생 인과 관계의 핵심적 실마리를 찾게 된다. 69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손실을 줄인다. 81년생 변화보다는 안정을 꾀해야 할 국세라 할 만하다. 93년생 턱이 높은 이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7, 77</p>
<p>辰 40년생 기존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52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불만하다면 차제에 버려라. 76년생 그럴듯한 명분에 현혹 된다면 곤란해진다. 88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행운의 숫자 : 72, 74</p>	<p>戌 34년생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46년생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58년생 무모함은 피해를 부르기도 한다. 70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82년생 생기는 하나 만족시킬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행운의 숫자 : 34, 04</p>
<p>巳 41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기쁨이 이루어지리라. 53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65년생 공격적으로 정리되거나 통합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77년생 변화하는 형세이니 기민하게 응대해야 한다. 89년생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2, 90</p>	<p>亥 35년생 흡족하게 이루어지겠다. 47년생 물이 깊은 곳이 라이만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59년생 취하고 버림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겠다. 71년생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3년생 핵심 사항을 간과 한다면 실기로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행운의 숫자 : 42, 20</p>